

# 계룡산과 금강이 어우러진 공주

강 욱  
자유기고가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로 새롭게 떠오르는 충청남도 공주 땅. 요즘 공주(公州)는 연기군과 함께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는 관심의 지역이다. 이곳에는 인구 50만 명을 수용하는 행정중심 도시 '세종시'가 건설된다.

조선왕조 때의 문장가 서거정은 「동국여지승람」에 적힌 '취원루기'에서 "차령 이남에서 산천의 맑은 기운이 충만하게 쌓여서 큰 고을을 이룬 것에는 오직 공주가 제일이다. 대개 장백산의 한 갈래가 바다를 끼고 남쪽으로 달려 계림에 이르러서는 원적산이 되고 서쪽으로 꺾여서 웅진을 만나 움츠러 큰 산악을 이룬 것을 계룡산이라 한다. 물이 용담, 무주 두 고을에서 근원을 발하여 금산에 합쳐져 영동, 옥천, 청주 세 고을 이르러 금강이 되고 또 꺾여 사비강이 되어서는 더욱더 큰 물을 이루어 길게 구불구불 바다로 들어간다. 이에 공주는 계룡산을 진산으로 삼고 웅진으로 금대를 두르고 있으니 그 산천의 아름다움을 알겠도다"고 했다.

충청남도 중앙에 위치해 수려한 산세를 자랑하는 공주시는 북쪽으로는 차령산맥과 남쪽으로는 노령산맥이 이어져 있으며 동남쪽의 계룡산을 진산으로 하여 금강이 중앙을 관류하여 그 주위에 비옥한 평야를 형성하였다. 공주는 삼국시대에는 백제 5대왕(문주, 삼근, 동성, 무령, 성왕) 64년간(475~538)의 왕도였다.

백제가 망한 후 통일신라 신문왕 6년(686) 웅천주의 수두(도독부) 였고 고려 태조 2년(940)에 웅주

(熊州)를 공주(公州)로 개칭하였다. 고려 성종 2년에는 공주에 목(牧)을 설치할 정도로 충청지역의 요충지로 떠올랐다. 조선시대에도 공주의 중요성은 인식되었다. 선조 31년(1598) 충청도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옮겼으며 이후 334년간 충청도의 수부로서 역할을 했다. 이후 공주는 1910년부터 1932년까지 23년간 충청남도의 도청소재지로서 삼남지방에서 한양을 향하는 관문 구실을 했다.

공주시에서 동남쪽으로 20km 지점에 위치해 우뚝 솟은 계룡산(鷄龍山)은 1968년 국내에서 두 번째로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명산이다. 해발 845m의 독립된 산으로 전체 모습이 마치 닭의 벼슬을 쓴 용과 같다고 해서 계룡산으로 이름이 붙어졌다. 이 산은 ‘하늘을 받치고 있는’ 주봉인 상봉을 비롯하여 삼불봉, 연천봉, 황적봉, 문필봉, 관음봉, 도덕봉 등 크고 작은 봉우리가 열다섯 개나 솟아 있다.

계룡산은 멀리서 보면 평범한 어느 산과 그리 다를 바가 없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다운 골짜기와 바위와 나무를 둘러보면 그 산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에 빠져들게 된다. 계룡산은 통일신라시대에는 서악으로 신라의 다섯 명산에 들어 해마다 제사를 지냈던 산이다. 조선왕조 시대에도 묘향산의 상악단과 지리산의 하악단과 함께 중악단을 이 산에 세워 해마다 봄과 가을에 나라에서 계룡 산신에게 제사를 지냈다.

계룡산은 경치가 뛰어날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 전설이 어린 절이며 탑이며 못이며 나무 같은 것이 흩어져 있다. 이 산은 봉우리에도 물이 넘쳐 거기서 흘러내리는 물이 서쪽에서 용문폭포를, 동쪽에서 은선폭포를 이룬다. 또한 계룡산은 산세가 신비롭고 그윽하여 그런지 정씨가 도읍할 곳이라는 도참설과 함께 정감록을 믿는 갖가지 민간 신앙이 싹튼 곳으로도 유명하다.

그래서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계단이나 신단을 갖추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올리며 그 자연의 신비한 힘으로 자신의 소망을 간절히 바랐다. 어디를 가나 수려한 자연환경을 지닌 산속에는 절이 많듯이 이곳 계룡산에도 많은 절들이 산재해 있다. 큰 절로 널리 알려진 동쪽 기슭의 동학사, 서쪽 기슭의 갑사, 남쪽 기슭의 신원사가 있고, 그밖에도 구룡사를 포함하여 절 스무개쯤이 있다.

공주 땅에는 이곳의 역사를 말해주는 갖가지 흔적들이 남아 있다. 그런 것 중에 특히 옛 무덤을 들 수 있다. 공주시의 봉황동과 금성동과 옥용동과 금학동, 그리고 이인면 구암리, 탄천면 남산리 같은 곳에는 몇십채의 옛 무덤들이 있다. 그런데 이 무덤들이 제국주의 일본 시대에 도굴꾼의 손에 의해 파헤쳐져 그 귀중한 부장품들이 사방으로 흩어졌고 많은 수효가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이 무덤들 중 특히 중요한 것은 사적 제13호인 송산리 고분군이다. 공주시 금성동에 위치한 이 고분군에는 백제시대의 고분 6기(基)가 있다. 특히 1971년에 발굴된 백제 제25대 무령왕릉(武寧王陵)이 있으며 이 능의 발굴로 백제사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백제의 뛰어난 건축기술을 짐작케 하는데 여기서 발굴된 부장품은 108종 2,906점으로 국보로 지정된 문화재만도 12점이나 된다.

공주시내 산성동에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성곽인 공산성이 있다. 사적 제 12호인 이 성은 백제 문주왕 1년(475)에 한산성에서 웅진으로 천도하였다가, 성왕 16(538)년에 부여로 천도할 때 까지 5대 64년간 공주를 도읍지로 정하면서 축조한 산성이다. 현재 성터는 동서 약 800m, 남북이 약 400m로 사방에 석루가 남아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조선 중기에 개수된 것이다.

공산성은 금강과 공주시가지를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어 명실공히 공주 역사문화의 1번지로 불리고 있다. 이 성은 동쪽과 남쪽 성벽은 돌로 쌓아 높이가 약 2.5m인데 전면만을 석축하였으며 내면은 토사와 잡석으로 다져 붙였고 너비는 3m이다. 성내에는 진남루, 공북루, 쌍수정, 명국산장비, 영은사, 연저, 임류각, 군창지 등 많은 문화재가 산재해 있어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공주에서 논산 방향으로 12km 지점의 계룡산 서쪽에 위치한 갑사(甲寺)는 계룡사, 계룡갑사, 갑사사라고도 부른다. 이 절은 백제 구이신왕 원년(420)에 고구려에서 온 승려 이도가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그 후 삼국통일 후인 신라 문무왕 19년(679)에 의상이 당우 1천 칸을 더 지어 화엄도량으로 신라 10대 사찰의 하나로 번창하였다. 갑사는 1597년 정유재란 때 왜구들에 의해 모두 소실되었다가 효종 5년(1654)에 크게 중창하고 다시 고종 12년에 중건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갑사에 현존하는 건물로는 대웅전, 대적전, 천불전, 응향각, 진해당, 적묵당, 팔상전, 표충원, 삼성각 등이 있다. 갑사 철당간 및 지주는 보물 제256호로 기단부는 지대석에 파묻혀 있고, 기단은 단층으로 길쭉한 돌 2장을 합쳐서 직사각형을 이루고 있다. 지금도 상면 접촉 부분 두 곳에는 두 돌을 합치는 쇠못이 남아 있다. 갑사 부도는 고려시대의 부도로 보물 제257호이다. 이 부도는 기본형은 8각 원당형이지만 기단부에서 특이한 수법을 보이고 있다. 하단은 각면에 사자를 한 마리씩 조각하고 모서리마다 연꽃잎이 피어나는 모양을 조각하였다.

대전권의 유성온천과 인접해 있는 동학사(東鶴寺)는 계룡산의 3대 사찰 중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다. 동학사는 공주에서 대전 방향으로 24km 지점의 국립공원 계룡산의 동쪽에 위치해 있다. 이 절은 신라 성덕왕 23년(724)에 상원이 암자를 지었던 곳에 회이가 절을 지어 상원사라 하고 고려 태조 4년에 도선이 중창한 뒤 태조의 원당이 되었다. 그 후 936년에 신라가 망하자 대승관으로 있던 유차달이 이곳에서 신라 시조와 박제상의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 동학사로 이름을 바꾸어 확장했다고 전해진다.

절 이름에 대해서도 절 동쪽에 학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동학사로 했다는 설과 고려말의 충신인 정몽주를 제사지냈으므로 동학사라는 설도 있다. 동학사는 비구니의 교육전당으로도 유명하다. 1860년 강원(講院)을 개원한 승가대학은 전국적으로 이곳을 거치지 않은 비구니가 없을 정도이다.

공주에서 부여로 넘어가는 금학동에는 동학농민 전쟁의 최후 격전지였던 우금치(牛禁峙)전적지가

있다. 이곳은 1894년 11월에 동학 농민군이 연합군인 관군과 일본군을 상대로 격전을 벌인 곳으로서 사적 제387호로 지정되어 있다. 당시 전봉준이 지휘하는 농민군은 이곳을 확보하는 것이 향후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이었다. 우금치는 공주의 치소에서 부여 방면으로 넘어가는 높은 고개로 일단 우금치만 장악하면 공주 점령의 기선을 잡을 수 있었다.

당시 기록에 의하면 이 우금치 전투에 참가한 농민군은 대략 2만 여명으로 추정되고 있어 수적으로는 우세했다. 그러나 연합군의 일제 사격으로 겹겹이 쓰러져 진격 후퇴를 무려 40~50차례를 거듭한 혈전 끝에 거의 전멸하였다. 열강의 침략에 저항한 조선 민중의 사건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1973년 그 현장에 위령탑이 설치되었다.

산자수려한 자연경관에 전체면적의 70.4%가 임야인 공주는 일찍부터 임야를 이용한 농가소득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 중 공주 밤(栗)은 전국 생산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밤의 주산지로 명성이 높다. 공주 밤은 특히 정안면에서 많이 생산되는데 이 지역의 야산과 하천과 제방에는 온통 밤나무가 들어서 있어 밤나무골을 이룬다. 공주 밤은 추석 전에 수확하는 조생종 '단택'과 중생종 '추파', 중만생종 '이평', '옥광, 만생종'은기', '덕명' 등 7종이다.

표고버섯도 공주의 특산품으로 명성이 높다. 연간 1,000톤을 생산하고 있는 공주 표고버섯은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미네랄 등이 풍부하고 특유의 향으로 유명하다. 약용으로도 특효가 있는 공주 표고버섯은 국내시장은 물론 일본 및 세계시장으로 수출해 각광을 받고 있다.

또한 공주시 어디를 가나 감나무가 흔하다. 계룡산 감사 근처에 특히 감나무가 많은데 계룡산의 가을 경치 곧 '봄의 마곡사' '가을의 감사'로 불리는 감사의 뛰어난 가을 경치에 이 감나무 숲이 한몫을 거들고 있는 것이다.

지방무형문화재 제7호로 지정된 계룡백일주(鷄龍百日酒)는 옛부터 공주지방에 전해 내려오는 민속주로 유명하다. 조선 인조 때 일등공신인 이귀(李貴)가 왕실로부터 백일주 양조법을 하사 받아 이 술을 빚어 임금께 진상했다고 한다. 그 후 자손 대대로 연안 이씨 가양주로 계승되었다. 백일주는 향기와 미각이 독특하여 상품화되면서 명주로 전국에 널리 알려졌다.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하는 일

## 재해복구공제사업

### 1. 건물 및 시설물 재해복구공제사업

#### ■ 제도운영 개요

#### □ 공제등록 대상

- 건물 : 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일체
- 시설물 : 공제등록건물내에 있는 재산가액 100만원 이상의 시설
  - ☞ 자동차, 자전거 등 기동성이 있는 것과 박물관·전시관 등의 전시품 및 동식물류는 등록 대상이 아님
- 신체손해
  - ▶ 의무가입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해당 건물

#### □ 공제등록 회비

- 건물 : 용도·구조별의 등록구분 및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
- 시설물 : 시설물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신체손해 : 당해 건물의 용도에 따라 산정

#### □ 재해복구비 지급

- 지급대상 재해
  - ▶ 화재, 풍·수·설해 및 건물의 자연도괴·붕괴로 인한 손해
  - ▶ 건물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 ☞ 전쟁, 방화, 지진 등으로 인한 손해는 지급하지 아님
- 지급기준
  - ▶ 건물 재해복구비 : 등록구분 및 재해율에 따라 지급
  - ▶ 시설물 재해복구비 : 등록재산가액 및 재해율에 따라 지급
  - ▶ 신체손해 보상비 : 상해 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 사업특징

- 손해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40%저렴함
- 징수한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제회비 인하 및 복구비확대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 2. 지방관공선 재해복구공제사업

#### ■ 제도운영 개요

#### □ 공제등록 대상

-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선박 일체

#### □ 공제등록 회비

- 선박공제 : 선령 및 톤수를 기준으로 산정
- 충돌공제 : 당해 선박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
  - ※ 무사고 할인 : 당해 선박의 무사고 기간에 따라 선박공제회비를 3~10% 할인

□ **재해복구비 지급**

- 지급대상 재해
  - ▶ 침몰, 좌초, 충돌, 풍파에 의한 손해
  - ▶ 항방불명으로 인한 손해
  - ※ 피격, 나포, 천재지변, 고의 등에 의한 손해는 제외
- 지급기준
  - ▶ 전부손해 : 등록선박의 재산가 전액 지급
  - ▶ 부분 손해 : 등록선박의 수리비 전액 지급

□ **사업특징**

- 시중선박보험대비 공제회비(보험료)가 30%이상 저렴
- 징수한 공제회비는 재해복구비로 지급하고 잔액은 적립하여 연차적으로 공제회비 인하 및 복구비확대 지급,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건전운영에 기여

**공공청사 정비사업**

■ **사업안내**

지방자치단체의 노후·불량청사정비계획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공공청사를 신·증축할 경우 소요재원을 대여하는 사업임

■ **제도운영 개요**

□ **지원대상 및 지원액(신축)**

(단위 : 억원)

정비구분	청사유형	지급한도액	정비구분	청사유형	지급한도액
신축 · 매입	시·도 청사	718	신축 · 매입	보건소	16
	시·군·구 청사	166		사업소	시·도
	읍·면·동 청사	10	시·군·구		15
	시·군·구민회관 (문예, 스포츠, 여성, 장애인 등)	77	증축	시·도 청사	75
	공무원 교육원	75		시·군·구 청사	15
벤처기업 지원센터	56	읍·면·동 청사		1	
소방서(파출소)	20(3)		기타 청사	5	

※청사유형별 지원금의 실제 지급액은 당해 건축비 소요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지원조건**

- 지원금 상환 : 2년 거치 10년 균등 상환(일시상환 가능)
- 특별회비 납부 : 상환잔액에 대한 연리 3%(일할계산)

□ **지원방법 : 일시금 지급**

- 착공이후 지급신청시 배정전액 지급

**손해배상공제사업**

**1. 영조를 손해배상 공제사업**

■ **제도운영 개요**

□ **공제등록 구분**

- 일반등록 : 청사, 복지·숙박·환경시설, 공원, 도서관, 박물관, 공연장, 해수욕장 등
- 특별등록 : 도로, 주차장, 구내치료, 물적손해, 생산물배상, 오염사고, 청소년수련시설 등
- ※ 청소년수련시설은 청소년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의무보험 가입대상임
- ※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사용·관리하는 모든 시설물을 등록대상으로 함.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격월간 “**地方稅**”는 세정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는 전문교양지로서 아래와 같이 세정가족 여러분의 참여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정발전에 도움이 되는 논문이나 사례, 수기 등을 보내주시면 채택된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 제안 · 논문

세정발전과 업무개선에 관한 논문 등

■ 우수세정사례

각 자치단체의 독특한 세정활동이나 우수세정사례로 널리 홍보하고 싶은 내용

■ 세정수필

세정실무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보람이나 어려움 그리고 세정인의 가족으로서 느끼는 생활이야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혁신전략팀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02)3274-2011  
Fax. 02)3274-2009  
E-mail. gregori61@hanmail.net

“**地方稅**”지에 실린 원고 내용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본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地方稅

2007년 제 4 호  
(통권 제 102 호)

- 발행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
- 편집인** 김동완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 편집위원** 원윤희 |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이삼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손희준 | 청주대학교 교수  
김공박 | 도시행정발전연구소 소장  
김치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  
서승우 |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장  
강민구 | 행정자치부 지방세정팀장  
김외석 | 행정자치부 지방세심사팀장
- 발행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서울시 마포구 마포로 135(공덕동 253-42)  
지방재정회관 (우)121-719  
Tel. 02)3274-2011  
(행정) 1990-5383, 5384
- 발행일** 2007년 7월 30일
- 인쇄처** 영흥인쇄